

# 타종단 도난 성보까지 찾아준 종단 “성보제자리 찾기 대승적 노력 결과”

### 법화종 통영 안정사 삼세불도 도난 후 15년만에 ‘환지본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경찰청,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 회수한 도난성보문화재 가운데 한 점인 통영 안정사 ‘삼세불도(三世佛圖)’가 지난 3일 안정사로 이운됐다. 안정사는 법화종 소속 사찰로, 이번 삼세불도 귀환은 조계종이 종단을 막론하고 도난당한 불교성보를 되찾아와 돌려준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통영 안정사 삼세불도. 조선 후기 불화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하단에는 협시보살이 표현돼 있다.

안정사 삼세불도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화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그리고 하단에 협시보살이 표현돼 있다. 남아 있는 화기를 보면 ‘성상이 십팔이십사일 후불탱 우진주 백천사(佛上二十八二十四日 後佛禪于州百泉寺)’라고 적혀있다. 남아있는 불화들과 양식을 비교해볼 때 18세기에 조성된 불화일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서 성상은 영조(英祖)를 지칭하는 것으로 1752년에 제작돼 진주 백천사의 후불도로 봉안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11월1일 도난당한 이 불화는 2014년 조계종과 경찰청, 문화재청이 협력해 회수한 불교성보 31건 48점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조계종과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은 타종단인 안정사 삼세불도를 포함해 도난성보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사찰 주지 스님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결국 도난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던 사립 박물관 관장은 은닉죄가 인정돼 지난 5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도난문화재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라며 “개별 종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불교 성보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종단이 대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회수된 48점의 성보는 현재 원 봉안처인 개별 사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조계종은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돼 있는 나머지 성보와 관련해 오는 2017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이운식을 병행하

고 해당 사찰로 이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고성 옥천사 나한상과 시왕도 한 점, 송파구 오불회도 등 도난당한 불교성보들이 잇따라 제자리를 찾으면서 성보문화재 환수에 대한 불교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로까지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해당 성보가 도난당했음을 적시한 종단의 기록이었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나 중앙기록관에 보존돼 있는 종무행정서류들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종단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발간을 통해 불교성보의 도난을 막을 것”이라며 “소중한 성보가 원래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신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은 지난 6일 동대부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가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스리랑카 이주민에게 직접 선물을 주고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

### 제8회 이주민어울림 한마당

“스스로 다문화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이야기말로 행운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난 6일 이주민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열린 동대부고 실내체육관. 이날 글짓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원혜연 씨가 자신이 쓴 글을 토박토박 다 읽어 내려가자 체육관은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오랜 타향살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직접 씌어께 시상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와 문화를 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

체협의회의 국제전법단이 주최한 행사엔 네팔,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8개 나라 근로자 및 이주여성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함께 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렁찬 기합소리를 내며 단체줄넘기를 하고, 체육관을 마음껏 달리는 깃발잡기 서바이벌 경기를 통해 모처럼 숨은 실력을 뽐냈다. 부천에서 온 윤마 옹류(미얀마, 32)씨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더욱 즐겁고 기쁘다”고 말했다. 평택 마하위하리사원 주지 담마끼띠스님도 “이주민들을 위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 산업의 부족한 일손이 돼줬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든든한 구성원이 됐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날로 만들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청소년이 생각하는 문화재환수 방안은?

### 13일 토론회... 在日한국인도 참여

국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공동대표 박준호, 부두원, 이은택, 이상근)는 오는 13일 동국대에서 ‘제1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재 환수 디베이트 대회’를 개최

한다. 충남 아산스마트스쿨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불안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대회에는 초등생 32명(96명), 중학생 32명(96명), 고교생 20명(60명)과 대학생 총 300여 명과 일본 도쿄 한국인학교학생들도 참가한다.

부문별 주제는 초등생의 경우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중학생은 ‘불법반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에 대해 각각 토론한다.

또 고교생은 ‘문화재환수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에 대해, 대학생은 ‘국외역사문화유산을 환수, 보존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

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부문별로 국회의장상, 서울시장상, 충남도지사상, 동국대 총장상 등이 수여되며, 초중고 각 1팀에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문화재반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반된 입장에서 펼치는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국민 눈높이 맞는 문화재환수 교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 포교사교시 ‘추천자 전형’

### 포교원, 30일까지 응시자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자승스님)은 “2017년도 제22회 일반포교사 교시 가운데 ‘추천자 전형’에 응시할 지원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 다”고 지난 4일 공고했다.

추천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조계종 등록신도로서 총무원장·교무원장·포교원장·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거나 포교원 회의에서 인정한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추천서, 2016년도 신도교무금 영수증 사본 등

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포교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16일 오후6시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7년도 1월 중순경 진행될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22회 일반포교사 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허정철 기자의 현장에서 hjc@ibulgyo.com

## 최순실발 불교문화계 후폭풍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입이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진앙지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관료와 최순실 씨 측근들이 다수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화계는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문화계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 전시 등의 문화시장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정부주도의 문화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인사의 해택을 받았던 문화단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정설인 만큼 모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문화계 변방이자 소위 ‘돈이 안되는’ 분야가 많은 불교문화예술계는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은 이 곳은 한정된 불교문화행사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문화행사가 큰 수입원이다. 산사음악회 등 불교계 안팎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한 전통문화단체 관계자는 “비정기적인 불교 관련 행사로만 단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체부와 산하 기관, 지자체의 기획공연이 주 수입원”이라며 하지만 “최근의 사태로 내년 공연계획은 커녕 기존 예정된 행사도 보류되는 등 벌써부터 내년 살림이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적박한 환경에서도 ‘문화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각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활동을 펼쳐온 이들이지만, 세월호, 메르스, 북핵, 권력형 비리까지 연이어 악재에 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신심과 원력’으로 열악한 불교문화계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부(富)’를 부르는 숫자! 행운의 숫자를 분석하는 부자들의 습관

## 숫자의 비밀 81가지를 알면 ‘재물’의 흐름도 안다!

전국서점 베스트 셀러

(사)신심·행암사건해설서유학회 회장 정재원 지음

운명에 이용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활용하라!

### 〈운명 숫자의 비밀〉책을 잡으세요!

놓치면 다시오기 힘든 단 한번의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운명이 **확** 바뀝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저자는 온 몸에 세 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 기적 같은 운명의 소유자다. 하지만 불운으로 점철된 기구한 삶에 순응하지 않고 운명의 비밀을 풀어내며 운명도 결국엔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저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행운의 숫자를 만드는 비밀, 각자가 사용하는 숫자들의 길흉을 풀어볼 수 있는 81운수법과 불용문자를 책에서 만나보자. 그가 예언한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어긋난 인생길과 고된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 쓰고 있는 숫자는 없는지 의심해 보자.

- ★부자와 거지는 주민등록번호부터 다르다
- ★비밀번호 0000 절대로 쓰지 마라
- ★자동차번호를 더해 9,10,20이 나오면 대흉(大凶)

이미 결정 난 운명은 없다! 부, 건강, 성공.....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은행 비밀번호 등 내 운명을 지배하는 숫자의 비밀을 만나보자.

※ 지금까지 모르던 숫자의 세계! 기회는 늘 기다리지 않습니다

☎ 상상·무 | 정재원 지음 | 432쪽 | 값 12,900원

- 전국 유명 서점 판매중
- 직접 택배로 받아보실 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택배비 무료)

신정인당

www.sinjeung.com

구입 문의

(02) 765-4724~5

국민 018-21-0786-330 (예금주: 정재원)